

광주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 학생들 '학습지도 길잡이' 역할 톡톡

학생·학부모·교사 97.6% 만족 체계적 인력확보·역량강화 노력

광주시교육청의 공약사업인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7월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가 97.6%에 달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96.5%였으며, 전담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도 98.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2.7%는 "제도 운영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제도 운영에 따라 학생들의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학교 내 '예방-진단-지도-관리'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관련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70.2%는 '기초학력전담교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인력확보와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해 운영 만족도, 학생 학습 흥미도 향상 정도, 업무수행 적극성, 긍정적인 변화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로 2년째를 맞은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학생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기초학력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는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안내자료를 개발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대 해외교육봉사단의 지난해 베트남 린찌우(Linh Chieu)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광주교대 제공>

광주교대,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 선정

베트남 고법군 레득토 초교·투득시 린찌우 초교서 교육 봉사

광주교육대학교(총장 허승준)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광주교대는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선정돼 해외 교육봉사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단기해외교육봉사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교대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학생 17명과 광주교대 출신 현직교사 3명으로 구성된 광주교대 해외교육봉사단은 베트남 고법군 레득토(Le Duc Tho) 초등학교에서 2025년 1월 4주간 4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융합수학, 융합과학, SW교육,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한다.

2023년사업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던 투득

시 린찌우(Linh Chieu) 초등학교에서는 영재교육과 한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활동 이외에도 호치민시 사범대학교 학생들과 한국어 멘토링 및 교육·문화 교류 워크숍을 진행한다. 베트남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 연수, 호치민시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현지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베트남에서 교육과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외교사절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허승준 총장은 "베트남 해외교육봉사는 광주교대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갖춘 품격있는 초등교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특수교육 교직원, 문화예술과 함께 마음 건강 회복

도교육청, 46명 대상 마음돌봄 연수 스포츠·뮤지컬·미술관·전시 등 관람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서울 일원에서 지역 특수교육 교직원 46명을 대상으로 '마음돌봄 연수'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예술과 함께 마음 업(UP) 행복 업(UP)'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다양한 영역의 체험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고된 업무에 지친 교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스포츠(기아-키움 야구 경기)와 뮤지컬 공연(프랑켄슈타인), 미술관(리얼뱅크) 전시 관람 등으로 운영됐다.

이어 팀별로 고궁과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탐방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은



지난 14일 '특수교육 교직원 마음돌봄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새롭게 채운 행복한 기운을 학교에서 긍정적 에너지로 풀어내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특수교육 교직원이 다른 교직원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많

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직원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 현장에서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A등급'

사업비 60억 원 확보... 교육혁신전략·자체 성과관리 등 우수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올해 사업비 총 60억 4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 117개교를 대상으로 2차년도(2024년) 평가를 시행했으며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광주대는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혁신처'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재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다각적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재학생 대상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학생의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AI 에듀테크 센터를 신설해 교수학습법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을 도출한 점 ▲교육혁신 제도 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각종 학칙과 규정 제·개정과 교육혁신 추진과정에 다양한 내·외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환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진 총장은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정신 대학"을 목표로 교육혁신, 학생지원, 건강경영, 지역상생, 미래기술 육성 등 5대 중장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재학생이 꿈을 실현하고, 지역민에 사랑받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미용사 일반 헤어 국가시험장' 선정

전문인력양성 적극 협조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미용예술학과(학과장 박장순)는 광주시 남구에서 유일하게 미용사 일반(헤어)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14회차 상시검정'을 송원대학교 Action동 5층 미용예술학과 실습실에서 진행했다.

미용예술학과 박장순 학과장은 "지역 예비 미용인재의 자격을 검증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송원대학교에서 치르게 됐다"면서 "미래 K-미용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송원대 미용예술학과는 미용학 전공지식을 지닌 우수 미용 교육자와 역량 있는 미래형 미용산업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